



간추린 청렴 소식

[1]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대검찰청에서는 2019. 7. 25.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가치를 당부하였습니다.

- 헌법과 법에 따라 비례와 균형을 지키는 형사법 집행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 집행 역량 집중
- 사회적 약자 및 서민 대상 범죄 엄벌, 피해자 보호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생각에 공감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감찰본부, '청렴도 측정 대상자 명부' 권익위 제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9. 7. 18. 매년 발표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근거하여 청렴도 측정 대상자 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기간 동안 민원인·직원·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3] 전주지검, 주기적 '공무원 행동강령평가' 실시



전주지검(검사장 권순범)은 행동강령 숙지도 제고를 위해 2개월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는 포상을 받고, 부진자는 검사장과 함께하는 오답풀이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



칭찬합니다

검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검찰 구성원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순천지청 **고은아 실무관** 입니다.

재판 중 열람등사실에서 근무하는 고은아 실무관은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로 민원인에게 만족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편안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처음 방문하였는데 접수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복사하는 방법도 하나 하나 가르쳐 주어 대기업 서비스를 받는 느낌으로 불편함 없이 기분 좋게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결재 속도가 빨라져 기분 좋게 일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 영화 '밀정' 中 -



8월의 추천영화는 **밀정** (2016년 개봉 / 감독 김지운)입니다.

일제 강점기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일제와 의열단 사이에 이중첩자가 된 밀정의 이야기를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속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바쳐 노력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수 많은 핏박과 좌절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냈던 선조들의 의지를 본받아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 '정당한 소신'을 지켜나가는 검찰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청렴(淸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룩해야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51.6%의 국민은 여전히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고,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긍정하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다양한 반부패 정책 등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부족한 소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 소통의 부재는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바로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이렇게 쌓인 오해는 국민과 정부,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불신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논어(論語)에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는 구절이 있듯이,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신뢰는 소통을 통해 쌓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진화된 방송 통신매체 및 SNS의 시대를 사는 국민들은 투명한 정책과정을 통한 공직사회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뜻을 잘 살피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후한시대 '관서의 공자'라 불리던 양진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천거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황금 열 근을 가져온 왕밀에게 사지(四知)를 언급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아래 보기 중 사지(四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① 我知 ② 天知 ③ 子知 ④ 父知 ⑤ 地知

※ 힌트 : Monthly청렴 7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19. 8. 19.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7월 정답은

① **키루스** 옳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탁○○(광주), 강○○(대검), 변○○(청주), 신○○(통영), 최○○(서울북부), 최○○(의정부), 우○○(제주), 진○○(부산), 장○○(서울동부), 김○○(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서류를 받고 봉투에 넣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서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각자가 검찰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세부적으로 자세히 해주고, 특히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물어보기도 전에 잘 안내해 주어 일처리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친절과 충분한 안내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정읍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자에 대한 칭찬의견입니다~ ^^*

